

BoB 7기 보안컨설팅트랙 후기

한성대학교 1494034 임지환

Best of the Best 7기 보안컨설팅 트랙 후기를 간략히 적습니다. BoB 7기는 2018년 7월 2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19일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BoB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차 교육과정으로 나뉘는데, 1차는 집체 교육으로 7~9월 초까지 약 2달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과정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9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4달간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과정으로 Top 30에 선발이 되면, 1~2월 트랙별 심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각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드리면, 1차는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육을 진행하는데,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개별 과제뿐만 아니라 조별 과제, 가상기업 프로젝트 등 여러 과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 또는 밤 10시 이후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과제를 하는데, 보통 과제를 다한다는 기준으로 1차 교육과정 때는 집에 거의 갈 수 없을 것 입니다. BoB 7기 보안컨설팅 트랙 기준으로 2달간 총 64개의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우는 과목으로는 보안컨설팅 트랙 기준으로 시스템, 웹, 네트워크 해킹, 포렌식, 컨설팅 방법론, 제안서 작성, 모의 컨설팅 등 여러 분야를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BoB의 꽃이라 불리는 2차 교육에서는 멘티들이 멘토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제가 속했던 WYP 팀은 거의 BoB 센터에서 살다시피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저의 일정은 매일 아침 9~12 수업이 끝나고, 바로 센터로 가서 최소 밤 11시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집에 와서도 보통 새벽 3시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프로젝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촉박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Z-Wave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원격으로 조정하고 DoS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결과를 통해 보상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로 Z-Wave 해킹 툴 제작, 국제 해킹 컨퍼런스 POC2018에 메인 세션 발표, 0 day 취약점으로 CVE-2018-19982, CVE-2018-19983 등록, 논문 우수상, KT, LG, 삼성 등 실무진 분들에게 여러 가지 취약점을 제보하였고, 세미나를 수행하였지만, 이로 인한 기업과의 마찰로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 Top 30 최종 경영단계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BoB 자체가 처음부터 경쟁을 하는 곳인데, Top 30으로 가면 경쟁이 극한으로 올라갑니다. 교육은 각 트랙별로 선발된 8명씩 수업이 진행되는데, 3단계는 배우는 것이 아닌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특정 주제가 주어지면, 이에 대해 1명씩 토론, 발표, PT 등을 준비하여 매번 지적,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로 Top 30 교육이 심리적 측면에서는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BoB 7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느낀 바는 단기의 엄청난 노력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잘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것은 맞지만, 옆에서 함축하며 지켜본 결과 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Top 10 안에는 들지 못하더라도 정말 값진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